

해남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본격화

삼성SDS컨소시엄, 건축허가 접수
이달 중 인허가 마무리 후속 공정
3조원 투입...GPU 1만5천장 탑재
2028년 10월 말 최종 준공 목표

해남군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축 허가가 접수되면서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삼성SDS컨소시엄은 지난 3일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건축허가를 군에 접수했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서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1만5천평 부지에 연면적 1만

평 규모, 지진과 화재에 강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됐으며, 지상 2층의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이 들어선다. 군은 4월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 분야 도서 착수 및 구조 계산 등 후속 공정을 이어 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와 착공계를 마무리하고, 3분기에는 파일 및 토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28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4월 시범운영, 10월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건축인허가 접수를 시작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AI 시대의 국가전략 자산인 컴퓨팅 인프라가 해남군에 들어섬에 따



국가AI컴퓨팅센터 조감도. <해남군 제공>

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이 해남군으로 이동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 1만5천장을 탑재하고, 초거대 AI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적 AI컴퓨팅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AI컴퓨팅센터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저탄소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친환경 인프라의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해남군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전력망 확충을 위한 154kV 변전소 설치 인허가가 조만간 완료될 예정으로 오는 7월 착공, 국가AI컴퓨팅센터가 가동되는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전력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남군은 전력망 확충을 마중물로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연구소들이 모여드는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립에만 약 2조9천억원이 지역에 투입되며, 건설 기간 중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완공 후 국가AI컴퓨팅센터를 비롯한 연계 연구 기관 및 배후단지 등에 들어설 부품 제조업 등에 일자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과거부, 전남도와 원팀이 돼 2028년 준공될 때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솔라시도를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의 거점으로 만들어 군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군, 제4기 '1004 바다탐험대' 발대

어린이 바다지킴이 양성

신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4기 '1004 바다탐험대'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1004 바다탐험대'는 도서 지역 어린이들이 바다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발대식에서는 제3기 활동 성과 보고와 제4기 탐험대원 선서식이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1004 바다지킴이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물고기 과자 따먹기, 합동 유아 기

차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배웠다. 또한 분리수거하기, 워터볼 명찰 만들기, 헬륨 풍선 꾸미기, 포도존, 에어놀이터, 어린이 인형극 '피터팬의 바다모험'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제4기 '1004 바다탐험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및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환경 실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시상도 수여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바다는 미래 세대에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린이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가치를 배우고, 일상에서 바다 지킴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신선 수산물·공연 한곳에"...강진 마량놀토시장 개장

오는 11일 마량항 중방파제 일원서
월별 테마·물놀이장·경품 대폭 강화

2026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11일 강진군 마량항 중방파제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연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10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신선한 수산물 판매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개장하는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형식적인 개장식을 생략하고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실속 있는 행사로 운영된다. 개장 이벤트로는 전복 40%, 건어물 최대 20%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연계하면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와 LED 바다분수가 어우러져 마량항의 밤을 환상적으로 수놓으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운영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다. 월별 테마형 이벤트와 제철 수산물 할인 행사가 상시 운영되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11일 개장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장한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의 모습. <강진군 제공>

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등 계절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수증 이벤트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설 및 콘텐츠 개선도 눈에 띈다. 올해는 천연염색 판매부스가 새롭게 입점했으며, 시장 내 페인트 도색과 노후 간판 교체를 통해 전반적인 환경을 정비했다. 또한 전담대 카페 운영을 강화해 오션뷰를 배

경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매월 정기 운영함으로써 체험형 관광을 유도하고 방문객 및 소비층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해 총 27회 운영을 통해 6만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약 299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을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 모시몽 매운맛 개피떡 특허 등록

모시잎·고추 활용 디저트 개발

영광군은 6일 "모시잎을 이용한 영광 모시몽 매운맛 개피떡(사진) 제조 기술이 특허 등록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 기술은 영광 특산물인 모시잎과 고추를 활용한 전통 개피떡에 특색 있는 매운맛을 접목한 것으로, 기존 전통떡의 소비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강렬하고 도전적인 맛 기반의 새로운 디저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영광 모시잎송편 마스코트인 '모시몽'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고, 온라인에서 확산이 가능한 콘텐츠형 디저트로 기획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자층까지 확장 가능한 상품성을 확보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이번 특허등록은 단순 제품 개발을 넘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정체된 지역 떡 산업의 구조 개선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쌀 기반 디저트 개발을 통해 지역 떡 산업의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연계한 푸드테크 기반 산업화 모델 구축 가능성도 확인됐다. 영광군은 향후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해 관내 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병행해 지역 대표 디저트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완도군,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 건립

108억 투입...2027년 준공 예정
종사자에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완도군은 신지면 대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내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을 건립한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에 선정됐으

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착공한다. 총 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주택 연면적은 2천608㎡로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동과 지상 1층의 부대시설 1동이 들어서며, 43세대는 25㎡(12평형), 24세대는 34㎡(16평형) 12세대는 59㎡(25.7평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대를 세분화했다. 2027년도에는 해양바이오 등 지역 전략 산업

종사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택이 준공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과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 육성을 위한 연구·종사자 유입으로 지역 전략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도군은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평가 실증 센터와 함께 올해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준공,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데이터 평가 '최고 등급'

행안부 3개 부문 품질인증 만점 등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과 체계적인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6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에서 3개 부문 모두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자원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매우우수'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최우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우수'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부문에서는 만점인 100점을 기록해 보유 데이터베이스(DB)의 정확성과 품질 관리 수준을 공식 인정받았으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그중 특수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유해 요인 분석과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제도를 선제 도입해 근로자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대폭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기관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 개방해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함평군은 최근 함평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서 '제3회 함평군 종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서 전국 최초 '종자의 날' 기념식 개최

지역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함평군은 지역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 상징 마크의 3개의 원과 새싹 모형을 상징으로 삼아 매년 4월3일을 '종자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봄에 맞춰 '씨앗을 뿌리는 날'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으며,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행사는 식전 행사와 기념식, 부대행사로 나뉘

지역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 상징 마크의 3개의 원과 새싹 모형을 상징으로 삼아 매년 4월3일을 '종자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봄에 맞춰 '씨앗을 뿌리는 날'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으며,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행사는 식전 행사와 기념식, 부대행사로 나뉘

진행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생명의 시작인 종자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종자 지킴이 발대식'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행사를 통해 지역 종자 보존과 확산 실천 의지, 종자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종자는 농업의 출발점이자 미래 식량 주권을 지키는 핵심 자원"이라며 "종자의 날 기념식을 통해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함평군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